

# Special Column 2

## SNS = 새로운 소통

한국 Awana 주선영목사

'T.G.I.F.'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Thank God! It's Friday!' 라고 하는 표현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라는 의미죠. 주 5일제로 휴일 전 날인 금요일에 토요일의 기분이 드는 기쁜 마음에 외치던 말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들어 온 'T.G.I.F.' 라고 하는 유명한 레스토랑도 이 표현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러나 요즘 통용되고 있는 'T.G.I.F.'는 '트위터(Twitter), 구글(Google), 아이폰(iPhon), 페이스북(Facebook)'의 앞 글자를 의미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21세기를 살아가려면 하나 짚은 갖추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일상생활에서나 비즈니스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폭설이나 폭우, 교통사고 등으로 혼잡한 교통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거나, 어떤 사람이 혈액이 모자라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연을 트위터에 올렸더니 그 소식을 서로 전달하면서 순식간에 수많은 헌혈증서가 모여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했던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인해 물러나야 했던 상황도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비슷한 공통된 관심사로 맺어진 사람들은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한국 Awana 안에서도 **건강한 소통**을 기대하며 본격적인 소셜 네트워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Awana, 교회와 교회, 나아가 교회와 각 클럽의 가정, 믿지 않는 가정에까지 원활한 소통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wana의 모든 교사와 클럽원이 **열린 소통**으로 이 시대의 맑은 소망,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트위터: [www.twitter.com/awanakorea](http://www.twitter.com/awanakorea)



페이스북: [www.facebook.com/awana.korea](http://www.facebook.com/awana.korea)